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낮 미사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12월 생활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낮 미사 (23. 12. 25.)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52,7-10):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9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10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제2독서(히브리서 1,1-6):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 복음(요한복음 1,1-5.9-14):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 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샘이신 주님, 구세주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세상 모든 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공직에 있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맡은 일 안에서 합리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3.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새 영세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어려움에 놓여 방황할 때

주님의 굳센 팔로 잡아 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 성가 ♪

- 입당 : 102 (어서가 경배하세)
- 봉헌 : 101 (글로리아 높으신이의 탄생)
- 성체 : 106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 107(천사의 찬송)
- 파견 :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공지 사항

♣ 12월 31일 미사 안내

- 다음 주일 미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및 '송년 감사 미사'로 봉헌됩니다.
- 시간 : 31일 오후 17시

♣ 봉사자

	성탄 낮미사(25일)	다음 주일(31일)
제1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김산영 올리아
제2독서	안서현 안젤라	허희숙 마리아
복사	강한 프란체스코 노부야 이초가티안	엄채윤 엘리사벳 강윤이 스텔라
복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이경진 카타리나	김산영 올리아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대림 제4주일 봉헌금: 263.35€, 교무금: 470.00€
- 성탄 밤미사 구유경배예물: 205€, 봉헌금: 163.40€

